"힘들고 지칠때 거리의 상담원 찾으렴"

청소년 지킴이 '아웃 리치' 떴다

광주YWCA 쉼터버스 이용 활동

지난 4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한 건물 계단. 진한 화장을 한 여학생들과 담배갑을 손에 쥔 남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들에게 광주 YWCA 청소년일시쉼터 상담원 장은선(여·40)씨가 다가가 말을 건넸다. 장씨는 "혹시 고등학생? 친구 기다리니? 가출한 친구들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에게 연락해줄래?"라고 물었다.

한 여학생이 "거기가 어딘데요? 가출한 친구가 있는데…"라며 관심을 보이자, 장씨는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30분 후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 세워진 이동쉼터 버스로 17살 여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다. 3개월 전 가정폭력으로 가출해 동구 대인동 원룸에서 또래 친구들 7명과 '가출팸'을 형성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A양은 상담을 받은 뒤 "아직은 팸에서 살고 싶지만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

이날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금남공원~밀리오레 건물 뒷 골목~광주천변 일대~남광주 시장~금남로·충장로 골목길 일대를 돌아다닌 3명의 상담사들은 3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거리상담과 쉼터 연계, 먹거리 등을 제공했다. 특히 쪽방촌이 형성돼 장기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 시청 일대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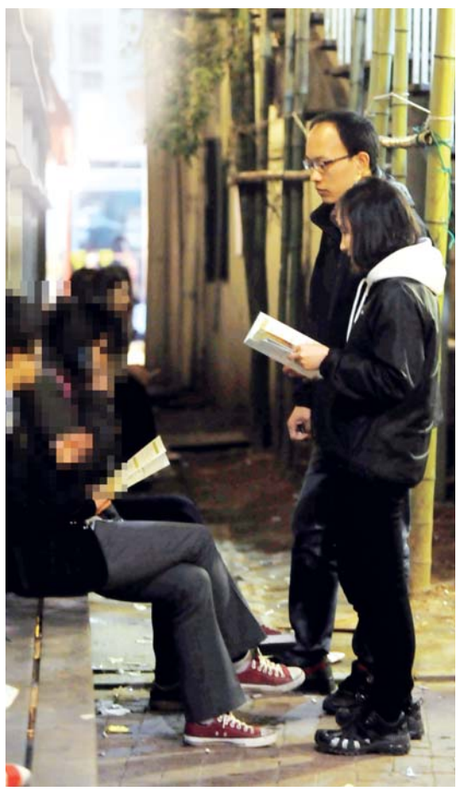
광주YWCA에 따르면 광주지역 밤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은 한 해 1000여명. 이들은 생활비나 용돈을 조달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거나,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광주YWCA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동쉼터 버스를 이용해 찾아가는 상담활동인 아웃 리치를 시행,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와 서구 쌍촌동, 북구 전남대 후문 등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청소년들에게 쉼터는 '또 다른 제재가 있는 곳'이란 편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상담원 신문수(31)씨는 "실제로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규칙과 어른들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접근을 경계하고 신뢰를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담없고 따뜻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4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아웃 리치 상담원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웃 리치(Out Reach)=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이나 쉼터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가출팸=가출 패밀리의 줄임말로 청소년이 가출한 후 2~4명씩 무리를 지어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전문계고 취업률 10년만에 반토막

광주 지난해 27.3%

광주지역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특성화고 취업률은 27.3%로 10년 전인 2001년 44%에 비해 16.7%P 하락했다. 광주에는 13개 특성화 고교가 있다. 수치상으로 10년 전에는 특성화고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직장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2~3명만 취업을 하는 셈이다.

이는 졸업생이 취업 대신 대학을 가는 진학률이 매년 늘어 2001년 56.9%에서 지난해 72.2%까지 치솟은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졸업과 함께 취업을 통한 기능인 양성이라는 특성화고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한 셈이다.

특성화 고교 간 양극화도 심화돼 일부 마이스터고 등 인기 특성화 고교는 지원자가 넘치지만 상당수 고교는 정원 채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도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벌과 사무직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기능인과 고졸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보수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회적 분위기 전환과 함께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의 전문성 강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 전문계고 육성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계고 존립은 취업률 제고에 있는 만큼 성공 취업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공립 중·고 대안학교 문 연다

곡성에 고등학교 내년 3월 9학급 개교

중학교는 강진에 2013년

전남도교육청은 5일 "학교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위해 중·고교 과정의 전남미래형특성화 중·고교(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국가기관이 세운 첫 공립학교가 된다.

곡성군 옛 목사동중학교를 증·개축하는 고등학교는 내년 3월, 강진 옛 군동중학교에 신축되는 중학교는 2013년 3월 개교한다. 사업비는 모두 115억원이며, 기숙형 학교로 운영된다.

중·고교 모두 총 9학급(학급당 20명) 규모며 이 가운데 3학급은 일선 학교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한다.

대안학교 특성에 맞춰 기존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중도탈락 최소화와 함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중도 탈락 학생은 중학생 497명, 고교생은 1451명 등 2000명에 육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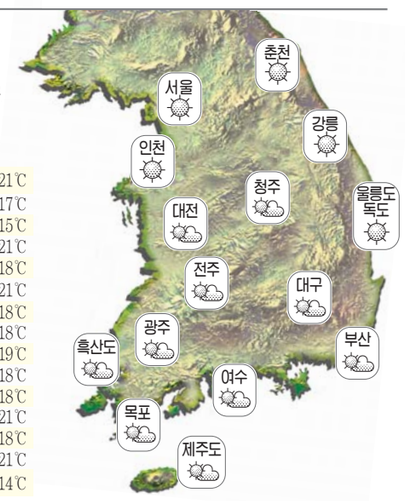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3분 해짐 18시 57분 / 달뜸 07시 13분 달짐 21시 35분

한식(寒食)

대기가 건조해 성묘객들은 산불에 주의해야 한다.

광 주	맑은뒤흐림	4/21℃
목 포	맑은뒤흐림	5/17℃
여 수	맑은뒤흐림	7/15℃
나 주	맑은뒤흐림	1/21℃
완 도	맑은뒤흐림	3/18℃
구 례	맑은뒤흐림	0/21℃
해 남	맑은뒤흐림	-1/18℃
장 흥	맑은뒤흐림	0/18℃
순 천	맑은뒤흐림	5/19℃
영 광	맑은뒤흐림	1/18℃
진 도	맑은뒤흐림	0/18℃
전 주	맑은뒤흐림	3/21℃
군 산	맑은뒤흐림	2/18℃
남 원	맑은뒤흐림	0/21℃
흑산도	맑은뒤흐림	6/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밀물	썰물
목포	03:42 15:39	08:52 20:55
여수	10:19 22:48	04:14 16: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날 씨						
최저/최고	10/15	9/15	5/17	6/19	6/20	6/20

"돈 때문에 이혼" 10년새 78% 급증

이혼남녀 4405명 설문

2000년대 들어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갈라서는 부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결혼정보회사 선우가 신구대학 경영과 구기동 교수와 함께 1990~2009년 이혼한 남녀 440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 금전적 문제로 이혼했다고 답한 비율은 1990~1999년 7.1%에서 2000~2009년 12.7%로 77.8% 증가했다.

'가족간 갈등' 때문이라는 답변은 7.3%에서 11.2%로 늘었고 '외도 등 부정한 행위'로 갈라선 비율도 12.7%에서 15.5%로 상승했다.

반면 '육체 · 정신적 학대'로 인한 이혼은 5.7%에서 3.7%로, 질병 때문에 이혼한 부부는 6.4%에서 4.0%로 줄었다.

중년이나 황혼기에 갈라서는 부부가 늘면서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35.6세에서 38.4세로, 여자는 31.2세에서 33.9세로 각각 2.7세 가량 많아졌고 이혼한 부부가 결혼 이후 함께 산 기간도 4.2년에서 7.8년으로 상당히 늘어났다.

/연합뉴스